

『한국개혁신학』 제33호 (2012): 41-71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신 인식과 인간 인식을 중심으로

이은선

(안양대/교회사)

〈한글초록〉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학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한다. 그는 『기독교강요』 1권에서는 자연, 성경, 그리스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런데 자연, 성경,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 자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시의 역할을 의미한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대하여 관계론적인 측면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실재론적인 측면을 지상생활을 위한 보조적인 관점으로 사용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을 좌

소로 하여 영혼에 새겨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창조할 때에 주어졌다가 타락했을 때 상실하였으며, 중생할 때에 회복되기 시작하여 평생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실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후에도 존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존엄성 때문에 살인이 금지되고, 모든 인종과 종교와 계급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해야한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 후에도 이성과 의지가 남아있고 양심에 자연법에 새겨져 있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과 지상생활과 관련하여 관계론과 실재론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칼빈은 여성은 창조와 구원의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세상 질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종속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나타났던 베일을 쓰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아디아포라로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창조 질서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자연에 대한 지배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라고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시간적인 측면과 함께 자연보호의 청지기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암시하고 있다.

*** 주제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관계, 실재, 아디아포라, 지배권.

I. 들어가는 말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

근에 한국에서도 여러 칼빈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¹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서 주된 관점은 바르트(Karl Barth)와 부르너(Emile Brunner)의 자연신학 논쟁에서 생겨났다. 바르트는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성격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형상이 타락하여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았다.² 이후에 그의 개념은 니젤(W. Niesel)과 토랜스(T. F. Torrance) 등이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이들은 칼빈의 거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인간의 창조, 타락, 구원에서 관계론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³ 이러한 바르트의 입장에 반대하여 부르너는 하나님의 실질적 형상은 인간의 타락에서 상실되었으나 형식적 형상은 상실되지 않고 훼손된 잔존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⁴ 이러한 부르너의 입장은 프랑스의 스토페르(R. Stauffer)에 의해 계승되었다. 스토페르는 칼빈의 설교론의 연구를 통하여 칼빈이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의무와 모든 인간적인 차별을 극복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⁵ 엥겔(Mary Potter Engel)은 이러한 양 관점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 사용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⁶ 국내 연구자

¹ 이오갑,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조직신학논총』 3/1 (1998): 109-28; 권호덕, “거울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이해”, 『한국개혁신학회논문집』 8/1 (2000): 200-44; 고광필,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형상과 인간성 회복”, 『광신논단』 9/1 (2000): 143-75; Byung-Ho Moon, “The Seat of Image of God: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Soul as *Substantia*,”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13/ 1 (2007): 138-67; 유창형,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평가”, 『조직신학연구』 11 (2008): 77-109; 김요셉,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있어서 두 관점”, 『교회와 문화』 23 (2009): 209-29.

² Emile Brunner and Karl Barth, *Natural Theology*, 김동건 역, 『자연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84.

³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63-65, 76;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35-82.

⁴ Brunner and Barth, 『자연신학』, 46-47.

⁵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이오갑 교수는 Nouveau Regime 박사의 지도하에 다음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Lee Ou-Kab, “L’anthropologie de Jean Calvin — l’homme dans la tension bi-polaire entre le Deus maiestatis et le Deus nobiscum” (Facultés de Montpellier et de Paris, 1992).

들은 대부분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이 거울로서의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칼빈에게도 “인간 본성의 자체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는 실재론적인 하나님의 형상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⁷

칼빈의 이러한 형상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최근에 더욱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간의 몸의 포함 여부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성의 위치와 칼빈의 여성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논제로 등장하였다.⁸ 그리고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의 논의에 통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최근에 등장한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한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⁹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 특히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이해가 자연파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반박

⁶ Mary Potter Engel,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 (Atlanta: Scholars Press, 1987): 37-73.

⁷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는 이오갑만이 스토페르의 영향 하에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론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오갑,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125-28. 칼빈의 형상론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론에 대해 실재론(이오갑,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126) 혹은 구조적 이해(관점)(Stanley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Imago Dei*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41, 162)라고도 부른다.

⁸ Jane Dempsey Douglas가 여성의 하나님 형상론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The Image of God in Humanity: A Comparison of Calvin’s Teaching in 1536 and 1564,” in *In Honor of John Calvin, 1509-1564*, Papers from 1986 International Calvin Symposium McGill University, ed E. J. Furcha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87): 175-203; “Christian Freedom: What Calvin Learned at the School of Women,” *Church History* 53/2 (1984): 155-73; “Calvin’s Teaching: What Still Remains Pertinent,” *The Ecumenical Review* 39/1 (1987): 23-43; John L. Thompson, “Crata ad Imaginem Dei, Licet Secundo Gradu: Woman as The Image of God according to John Calvin,” *Harvard Theological Journal* 81/2 (1988): 125-43; Mary Potter Engel, “Gender Equality and Gender Hierarchy in Calvin’s Theology,” *Sign* 11/4 (1986): 725-39; 심창섭, “칼빈의 여성 사역에 대한 견해,” 『칼빈과 사회』(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08): 99-134; 이필은,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지도력과 아디아포라,” 『현상과 인식』108 (2009): 57-77.

⁹ 유창형,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평가,” 77. 유창형은 칼빈이 인간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주된 형상이라고 보지 않아 자연에 대한 청지기직의 기능적 신행상론의 관점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05).

하기 위해 칼빈의 형상론으로서의 자연 이해를 주목하면서, 이러한 형상론 속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칼빈의 생태학적인 입장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¹¹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독립된 각 주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논의했는데, 본고에서는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기독교강요』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고(창1:26-7),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며(히1:3), 남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고전11:7), 이러한 용법을 칼빈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란 구조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인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의 논의에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 자연에 대한 통치권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칼빈의 형상론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¹⁰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Western Man and Environmental Ethics*, ed. Jan Barbour (Englewood: Addison-Wesley, 1973), 29; David Kingsley, *Ecology and Religion: Ecological Spiritualit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nglewood: Prentice Hall, 1995), 111.

¹¹ Randall C. Zachman, "The Universe as the Living Image of God: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Reconsidered," *Concordia Theological Journal* 61/4 (1997): 299-312.

II.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과 신인식

1. 하나님의 형상인 자연만물

칼빈은 『기독교강요』 1권에서 자연만물(1. 5), 성경말씀(1. 6-9), 예수 그리스도(1. 10-14), 인간(1. 15. 3-8)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올바른 신인식에 도달하려는 목적에서 신형상을 논하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우리가 타락해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연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극장”(invisibilium rerum spectacula)인 세상의 구조가 우리에게 거울같이 (vice speculi) 놓여 있어서 이 거울을 통해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다.¹² 그는 또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형상(simulachra rerum invisibilium)”이어서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극장(speticulis)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¹³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셔서(Inst., I.5.1)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자연의) 모든 주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거울”이고¹⁴ “하나님의 훨씬 더 분명한 형상이 하늘에 새겨져 있다.”¹⁵ 따라서 칼빈은 히브리서 11장 3절 주석에서는 “이 세상에서

¹²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 5. 1. (이후 Inst.로 인용함)=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III ed.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Munich, 1957), 45. (이후 OS로 인용함).

¹³ Inst., 1, 5. 14, OS III, 59.

¹⁴ Comm, Psam, 8:1=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unt omnia* 31, ed.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unsvigae: A Schwetschke and Son, 1887), 88: “quia hoc est maxime illustre speculum in quo perspicere licet eius gloriam.” (이후 CO로 인용함).

¹⁵ Comm, Psam 19:1=CO 31, 194: “sed quia coelis insculpta est expressior imago.”

하나님의 명백한 형상을 본다”고 말한다.¹⁶

자연만물들은 하나님의 가시적 속성과 불가시적인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다.¹⁷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반영하여 드러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혜, 의, 생명, 능력, 선, 자비 등등의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들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묘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활동들 안에서 - 그러나 특별히 전체로서 그러한 활동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실질적으로 그림 속에서도 같이 제시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¹⁸

자연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반영하여 드러내는 거울로 존재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없다. 칼빈은 자연이 거울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로마가톨릭의 자연신학을 비판하고 있다.

2. 하나님의 형상인 성경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거울이 성경이다. 칼빈은 성경에 대해 “지혜와 권능과 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한다.¹⁹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산 형상

¹⁶ *Comm*, Heb, 11:3=CO 55, 145: “quod in hoc mundo conspicuam habeamus Dei imaginem.”

¹⁷ 칼빈은 히브리서, 시편, 로마서 등에 근거해서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특히 시편 8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cf. 권호덕, “거울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이해”, 207.

¹⁸ *Inst.*, 1, 5, 10=CO II, 48.

¹⁹ *Inst.*, 1, 14, 1=OS III, 153: “speculi, in quo viva eius effigies relucet.”

을 보여주는 거울”이므로, “실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마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εικονικῶς)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²⁰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형상에서,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²¹ 이러한 언급들에서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산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하고, 그의 형상이라고도 말한다. 칼빈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 내지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거울이나 형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Inst., 1. 9. 3)

3.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경이 가시적 형태인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모든 노력을 금지하고 그러한 노력을 우상숭배로 정죄한다고 강조한다. (Inst, 1. 11. 1-16) 반면에 칼빈은 그의 저술의 아주 초기부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1535년에 올리베탄이 번역한 불어 성경에 썼던 서문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나타내시는 참되고 영광스러운 형상”이라고 묘사한다.²² 칼빈은 『기독교강요』 2판(1539)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삼위일체론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찾도록 각성되는 데로 이끌려,

²⁰ Inst., 1. 10. 2=OS III, 86.

²¹ Inst., 1. 9. 3=OS III, 84: “ubi illum in sua imagine, hoc est in verbo, recognoscimus.”

²² CO 9, 819A.

차례로,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경고받아야 한다고 언급된다.²³ 그는 이러한 자기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히브리서 1장 3절에 호소하고, 이러한 이해는 이후의 성경주석들에 반영된다. 칼빈은 히브리서 1장 3절 주석에서 본체의 형상(Xarakter)의 헬라이어 캐릭터르는 “숨겨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체의 살아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실로, 그리고 완전하게 알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 마치 한 개의 동전이 그것을 찍어내는 모형의 형상을 정확히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²⁴ 그러므로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의미한다.²⁵ 고후 4:4절 주석에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성부와 동일본질이라는 의미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한 관계와 관련된다”고 말한다.²⁶

칼빈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는 초대 교부들의 주장과 달리 칼빈은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계시하는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칼빈의 주장은 인간의 하나님의 인식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이 자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

²³ *Institutio* 1539, IV 1=CO I:477: “Siquidem ut spiritu patris dictum est trahi nos oportere, quo ad Christum quaerendum et amplexandum excitemur, ita vicissim intelligendum est, invisibilem patrem non alibi quam in Christo, sua imagine, quaerendum esse.”

²⁴ *Comm*, Heb. 11:3=CO 55, 145.

²⁵ Randall C. Zachmann, *Image and Word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259.

²⁶ *Comm*, II Cor. 4:4=CO 50, 51.

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형상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칼빈이 자연, 성경,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III. 칼빈의 인간 인식과 하나님의 형상 - 관계론적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칼빈의 논의는 그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인간의 형상론을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먼저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당시의 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타락한 모습,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마지막 영화의 모습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구속사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구속사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당시의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구조 속에서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한 해석은 바르트 이후에 니젤과 토랜스를 중심으로 한 관계론적인 관점이 지배하고 있다.²⁷ 이하에서 칼빈이 제시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점에서 관계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 검토해 보자.

1.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칼빈은 인간이 창조 시에 받은 영혼을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라고 말한 후에 그 증거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칼빈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여 양자를 구분한다.²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창조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어 알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에서 회복되는 인간성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을 근거로 볼 때 지식, 순결한 의, 그리고 거룩을 말하는데, 여기서 추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진다.²⁹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 의, 거룩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으로 인간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³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를 영혼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므로 인간의 내적인 구조나 실재라고 보기 어렵다.

²⁷ 관계론의 기본적인 관점이 그들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들의 해석도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측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²⁸ *Inst.*, 1, 15, 3=CO II, 137.

²⁹ *Inst.*, 1, 15, 4=CO II, 138.

³⁰ *Inst.*, 2, 2, 12=CO II, 196.

칼빈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오시안더의 견해를 비판한다. 오시안더는 인간의 몸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의 몸을 원형으로 삼고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³¹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아담이 지음받았으므로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칼빈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은 반대하지만 인간의 몸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직립의 자세도 하나님의 형상과 결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칼빈은 외부적 특성에서 보이는 형상이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³²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이 영혼의 지배 하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오시안더와 같이 영혼과 몸을 동등한 위치에서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잡고 있는 영혼의 능력에 대해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력심리학을 따라서 이성과 의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이 영혼의 지도자로서 의지를 지배한다고 이해한다.³³ 인간이 창조된 상태에서 이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찾아올라 갈 수 있었고, 의지는 이성의 지도를 따라 영생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³⁴

³¹ *Inst.*, 1, 15, 3=CO II, 137

³² *Inst.*, 1, 15, 3=CO II, 137

³³ *Inst.*, 1, 15, 7=CO II, 142; Richard A. Muller, *An Accomodated Calvin*, 이은선 역,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 신학』 (서울: 나눔과 섬김, 2003), 416.

³⁴ *Inst.*, 1, 15, 8=CO II, 143.

2.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라고 말한다.³⁵ 칼빈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관계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해석한 반면에, 실재론자들은 형상이 타락했지만 남아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양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데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칼빈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사람의 자연적인 천품은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천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어거스틴의 상식화된 의견을 인정하여 두 가지를 구분한다.³⁶ 초자연적인 천품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자연적인 천품은 부패하였다. 제거된 초자연적인 천품이란 “하늘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얻는데 충분했을 믿음의 광명과 의를 의미한다.”³⁷ 이렇게 상실되었던 성질들은 그리스도께서 중생의 은총을 통해 회복시켜주시므로 외래적인 것이지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천품은 완전히 제거되어 중생의 은총으로만 회복된다고 설명한다. 실재론을 주장하는 슈라이너도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적인 성격이 파괴되었다고 인정한다.³⁸

초자연적인 천품은 제거된 반면에 자연적 천품은 부패하였다. 자연적 천품의 부패에서 관계론자들과 실재론자의 견해가 갈라진다. 양자는 자연적 천품인 지성의 건전성과 마음의 성실성도 동시에 제거되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칼빈은 『기독교

³⁵ *Inst.*, 1, 15. 4=CO II, 138.

³⁶ *Inst.*, 2, 2, 12=CO II, 196.

³⁷ *Inst.*, 2, 2, 12=CO II, 196.

³⁸ Schreiner, *The Theater of Glory*, 67.

장요』2권 1-5장에 걸쳐 구원과 관련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자연적 천품인 이성과 의지의 구원과 관련된 능력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강조한다. 인간의 이성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그의 구원, 그리고 그의 뜻인 율법을 아는 데서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³⁹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타락하여 구속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⁴⁰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천품에서 지상의 생활과 관련하여 칼빈은 이성에 대해 자연적 천품으로 타락한 상태에서도 “완전히 말소될 수 없으며,”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는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가 남아 있다”고 한다. 칼빈은 요한복음 1장 5절을 주석하면서 타락한 본성에서도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며 천부의 이해력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말한다.⁴¹ 실재론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고 말하는데 뒤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칼빈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상실되고 타락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3. 중생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칼빈은 인간 구원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칼빈은 “회개를 한 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⁴² 중생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중생을 통해 우리는 “이

³⁹ *Inst.* 2, 2, 18-25=CO, II, 200-206.

⁴⁰ *Inst.*, 2, 3, 6=CO, II, 215.

⁴¹ *Inst.* 2, 2, 12=CO, II, 197.

⁴² *Inst.*, 3, 3, 9=CO, II, 440.

성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올바르게 회복된다.⁴³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구성 부분인 이성과 의지가 조명을 받아 새로워져 신앙이 형성된다. 그래서 칼빈은 신앙을 이성의 기능인 지식에서 발생하는 동의와 함께 의지에서 생겨나는 신뢰라고 정의한다.⁴⁴ 이러한 신앙의 정의는 지성과 의지 사이의 균형잡힌 결합을 나타낸다.⁴⁵ 둘째로 중생은 새창조가 아닌 회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이며 “이 두 번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은 첫 번째보다 훨씬 능가한다”.⁴⁶ 셋째로 이러한 신앙을 통한 중생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다.⁴⁷ 이러한 중생의 과정은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될 때에, 그와 같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⁴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은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전개되어 창조, 타락, 중생에서의 상태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 형상의 상실, 그리고 회복으로 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형성, 상실, 회복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칼빈은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한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론에 대해 토랜스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에 대한 영적인 숙고’라고 주장하여, 인간 안에서

⁴³ *Comm*, Col. 3:10=CO 52, 121.

⁴⁴ *Inst.*, 3. 2. 33.

⁴⁵ Muller,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 신학』, 429.

⁴⁶ *Comm*, Eph. 4:24=CO 51, 208-9.

⁴⁷ *Comm*, II Cor. 3:18=CO 50, 47.

⁴⁸ *Inst.*, 1. 15. 4=CO II, 138.

하나님의 형상의 힘과 지속적인 유지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⁴⁹ 따라서 토랜스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에 문병호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영혼인데, 영혼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주하는 곳으로, 성령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의의 지속적인 전가를 통해 거주하신다는 기독교론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영혼의 실체는 어떤 질적 실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속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교제요 그의 의와의 교통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 보존, 구속을 위해 일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주로 명명된다.⁵⁰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주를 통한 교제로서 관계론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IV. 칼빈의 인간 인식과 하나님의 형상 - 실재론적인 하나님의 형상

칼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재론적인 측면도 설명하고 있다.⁵¹ 그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초자연적인 천품을 상실하였지만, 자연적인 천품인 이성과 의지는 온전함을 잃어버려 타락했지만, 그 능력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들은 지상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은총이다.

⁴⁹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58.

⁵⁰ Byung-Ho Moon, "The Seat of the Image of God," 156.

⁵¹ 신복윤은 칼빈의 이 양면적인 하나님 형상론을 개혁파의 윤리적 형상과 형이상학적 형상의 논의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144-45).

슈라이어는 칼빈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실재론적인 측면에서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 있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⁵² 타락 이후에도 인류의 보존을 설명하기 위하여,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칼빈은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다”는 사람에게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인간의 적잖은 숭고성과 다른 생물들 보다 뛰어난 우수성의 두 가지라고 지적한다.⁵³ 창조 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다.”⁵⁴ 그 존엄성은 타락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그러나 타락 후에도 적잖이 유지된다.⁵⁵ 그러므로 칼빈은 타락한 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칼빈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한다.”⁵⁶ 칼빈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결국 창세기 9장 6 절과 같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타락한 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선을 행하라”고 명령(히13:6)”하시는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정의와 사랑을 표하라”는 의미이다.⁵⁷ 칼빈은 “비루하고 무가치한 사람”에 대해 “그러나 높으

⁵²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82.

⁵³ *Comm*, Gen, 9:6=CO 23, 147.

⁵⁴ *Comm*, Gen, 2:7=CO 23, 35.

⁵⁵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일그러진 의지와 탁월한 이성”, 『복음과 상담』 12 (2009): 239.

⁵⁶ *Inst.*, 2, 8, 40=CO II, 295.

신 주께서 낮은 그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으므로”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 봉사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전 소유를 바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칼빈이 기독교 윤리의 근거로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빈이 기독교윤리의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바로 기독교인들이 자선을 행할 때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사역하던 제네바는 당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구제가 필요하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자신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자선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설교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당시의 제네바의 필요성을 목회의 관점에서 풀어나갔을 것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혈육이자 인간 동료로서의 형제애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고 보았고, 이것을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윤리의 신학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칼빈은 더 나아가서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과 정의와 공평의 관념을

⁵⁷ *Inst.*, 3. 7. 6=CO II, 510.

심어 놓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법과 질서에 대한 관념이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⁵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스토페르는 칼빈 사상의 포괄성으로 설명하였고, 이 오답은 구속주와 창조주의 관계로 설명하였다.⁵⁹ 이와 함께 칼빈은 이레니우스 이후에 구별하였던 형상과 모양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차이를 부정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형상 안에 포함시켜 구원의 영역과 지상 생활로 나누어 재해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계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영역에 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실재론자들은 지상생활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V. 칼빈의 인간 인식과 하나님의 형상과 여성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과 여성의 관계를 취급하면서 두 가지 문제의 긴장을 해결해야만 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27절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고전 11장 7절의 긴장을 해결해야만 한다. 둘째로 칼빈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바울의 표현을 여성의 교회 정치에서의 종속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기독교강요』초판에서부터 여성의 베일을 쓰는 것과 교회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아디아포라로서의 이해가 여성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교회 정치에의 참여를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칼빈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

⁵⁸ Schreiner, *The Theater of Glory*, 75-96.

⁵⁹ 이오갑,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127.

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으로 서술한 것에 대해 인간이 창조될 때에 남녀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갈 3장 28절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구원을 받았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칼빈은 바울이 고전 11장 7절에서 “형상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결혼의 질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한다.⁶⁰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표현은 “현세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 양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그 탁월성”의 측면에서는 남자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창세기 2장 18절 주석에서 여자가 “이차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한다.⁶¹ 바울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월성에 대해 여자의 기원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⁶²

이 세상의 질서와 관련한 여성들의 이러한 열등한 지위는 교회의 정치 질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베일을 써야할 것(고전11:5)과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고전14:34)과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였다(딤후전2:12). 칼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베일을 쓰는 것과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⁶³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최종판까지 변함이 없고 그러한 입장은 각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의 남성에

⁶⁰ *Comm*, I Cor, 1 11:7=CO 49, 476.

⁶¹ *Comm*, Gen 2:18=CO 23, 46: “*licet secundo gradu, ad imaginem Dei creata sit,*”

⁶² *Comm*, I Cor, 11:7-8=CO 49, 476-77.

⁶³ OSI, 256.

대한 복종의 원리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주석한다.⁶⁴ 칼빈은 여성이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구원에서 여성의 평등성의 인정은 여성을 우주적인 질서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았던 중세의 단일하고 위계적인 질서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였다.⁶⁵ 그렇지만 칼빈은 교회 정치에서는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성의 구원의 동등성과 교회 정치에서의 종속에 관한 칼빈의 입장이 구원에서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가? 아니면 교회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더글라스는 칼빈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두 가지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취급하였고 여성의 가르치는 지위에 대한 금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정치 질서로 보고, 드보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여성의 교회 정치에서의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보았다.⁶⁶ 그러나 톰슨은 칼빈이 아디아포라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을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여성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창조의 법으로서 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칼빈은 여성이 예외적인 환경에서 가르치거나 통치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코 보지 않았다.⁶⁷ 칼

⁶⁴ *Comm.* 1 Tim 2:11-12=CO 52, 276.

⁶⁵ Engel, "Gender Equality and Gender Hierarchy in Calvin's Theology," 736, 738.

⁶⁶ Douglass, "Christian Freedom: What Calvin Learned at the School of Women," 160-61. 더글라스는 이러한 칼빈의 진보적인 입장은 당시 프랑스 인문주의 여성들과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여성 지도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심창섭,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기독교 교육연구』 2/1(1991): 87-101; 정미현, "칼빈 시대의 여성, 여성주의, 그리고 그의 신학", 『한국교회사학회지』 26 (2009): 301. 정미현은 칼빈의 여성관의 평가에서 시대적 정황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⁶⁷ 이필은,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의 지도력과 아디아포라", 70.

빈은 예외인 “특별한 본보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리석고 부적합하다”고 경고한다.⁶⁸

그러므로 칼빈은 세상 질서와 관련하여 통치권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보는 바울의 입장에 동조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기 말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여성의 종속 가운데 가르침의 금지 규정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먼 미래의 실질적인 변화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창조질서와 관련된 교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⁶⁹

VI. 하나님의 형상인 자연과 하나님의 형상인 자연의 지배권과 환경 보존

화이트 2세(Lynn White, Jr)는 기독교가 “사람이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특별히 서구의 형식에서, 기독교는 세상이 보아온 가장 인간중심적인 종교”로서, “우리가 자연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제외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기독교 공리를 거부할 때까지 환경적 위기는 계속해서 악화되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킹슬레이(David Kingsley)는 최근에 화이트 2세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대행자 혹은 특별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자연을 다루는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를 모방할 것”이라는 것을 칼빈의 입장으로 확인하여 칼빈을 환경적으로 해로운 창조관을 가르친 신학자로 확인하였다.⁷⁰

⁶⁸ *Comm. Gen.*, 24:22=CO 23, 335.

⁶⁹ Thompson, “*Crata ad Imaginem Dei, Licet Secundo Gradu*,” 139; Claude-Marie Baldwin, “John Calvin and the Ethics of Gender Relations,”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139-40.

⁷⁰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29; Kingsley, *Ecology and Religion: Ecological Spiritualit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111.

그러면 칼빈은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칼빈은 이 세상이 인류의 사용과 위로를 위해 창조되었고, 세상에서 발견되는 좋은 일들의 풍성함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향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 우리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에 대해 가지신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자연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⁷¹

칼빈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연극배우가 되셔서 자연의 무대 위에서 역사를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초대받는다.⁷² 인간의 축복과 향유를 위한 세상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의 창조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일들의 창조자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다.⁷³ 칼빈은 히브리서 11:3절과 롬1:20절을 연결하여 우주를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은유를 발전시키면서, 자연은 그 형상을 통해 그 근원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자극한다고 주장한다.⁷⁴

칼빈은 시편 104편 1-2절 주석을 통해 자연을 하나님의 옷이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넘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칼빈은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두 가지 결과를 끌어낸다. 한 편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나무들과 들짐승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신 형상

⁷¹ Zachman, "The Universe as the Living Image of God," 299-312.

⁷² *Inst.* 1, 5, 10.

⁷³ *Comm.* Rom, 1:20=CO 49, 23

⁷⁴ *Comm.* Heb, 11:3=CO 55, 145.

대로 만든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양육하신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여,⁷⁵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여 다른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칼빈은 등지에서 어미새를 잡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주석하면서, “우리게 한 방울이라도 동정심이 있다면, 불행한 작은 새를 잡는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⁷⁶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그의 관심사에서 배제시키지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아름답게 장식된 복장인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복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장식하여 황홀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불붙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고, 하나님이 입으시는 아름다운 복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본받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창 2장 15절 주석에서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땅에 황폐화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청지기 사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⁷⁷ 칼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즉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이트 2세나 킹슬레이가 주장하는 자연 파괴의 책임이 결코 칼빈에게 돌아갈 수 없다.⁷⁸

그러면 칼빈은 이러한 자연을 돌보는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⁷⁵ *Comm*, Psam. 104:16=CO 32:91-92.

⁷⁶ *Comm*, Det. 22:6=CO 24, 634.

⁷⁷ *Comm*, Gen. 2:15=CO 23, 44

⁷⁸ Zachmann, “The Universe as the Living Image of God,” 312.

보았는가? 칼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내적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외적 특성인 자연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표지라는 크리소스톰의 견해는 부정하였다.⁷⁹ 그러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이 형상의 일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⁸⁰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자연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자연의 지배권이 인간의 청지기 직분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시간적 요소가 없다는 권오덕 교수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⁸¹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자연의 통치권과 함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 직분으로 자연의 개발과 함께 보존의 책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VII. 나가는 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그 핵심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자연과 우주,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들이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식은 성령의 조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⁷⁹ *Inst.* 1. 15. 4=CO II, 139. 칼빈이 자연에 대한 지배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오시안더의 견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시안더가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칼빈은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정하였고,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에 지배권도 하나님의 형상의 유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의 지배권이 주장하는 소시안주의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⁸⁰ *Comm. Gen.* 1:26=CO 23, 27.

⁸¹ 권오덕, “기울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이해”, 234.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만을 인정하고 시간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직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의 하나님의 형상에 시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간 인식과 관련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에서 관계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소유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나, 타락했을 때 상실하였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중생할 때에 다시 회복된다고 보았다. 칼빈은 구속과 관련된 측면에서 중세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론적인 관점을 관계론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종교개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였다. 그렇지만 칼빈은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자연적 천품인 이성과 의지의 지상생활과 관련된 능력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살인이 금지되고 신분, 종교, 인종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성립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과 관련된 관계론적인 측면과 지상생활과 관련된 실재론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포괄성을 나타내고 있다.

칼빈의 인간인식에서 여성의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창조와 구속에서 중세의 여성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남성과의 동등성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바울의 진술은 여성의 세상 정치 질서에서의 종속성을 나타내는데, 이 종속성은 베일을 쓰는 것과 교회에서 잠잠한 것 등의 아디아포라의 측면도 있으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같은 창조질서로서의 불변의 측면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자 의복인 자연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보이시는 관심의 측면에서 우리도 자연에 관심을 보여야 하고, 창 2:15절에 나타난 청지기직에 근거하여 자연보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칼빈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인정한다. 칼빈은 이와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Abstract〉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Image of God.

Eun-Seon Lee

(Anyang University/Church History)

Calvin explains the various objects as image of God in his theology, defining the image of God as the reflection of the God's glory. He uses the image of God with reference to the knowledge of God and ourselves. He describes nature, scriptures, and Christ from the viewpoint of image of God in the first book of *Institutes*. They lead us the recognition of God. But the fallen mankind don't recognize the image of God mirrored in them. Those who are illuminated by the Holy Spirit can recognize the image of God reflected in them. When he uses the image of God concerning nature, Scriptures, and Christ, it means the role of revelation in which the invisible God can be recognized by us.

Calvin focuses on the dynamic relationship of the image of God from the soteriological point about the human creation as the image of God. He sees soul as the seat of image of God and he understands that it is engraved on the soul. It is given at the creation of the soul, it is lost when it corrupts and it is restored when it is regenerated and it's restoration progresses gradually during one's life. He also use the image of God as the substantial endowment for the christian ethic. The image of God has residue when it depraved. And mankind has the human dignity and the killing is forbidden because of his image

of God. We must also love every neighbor when we sees his image of God.

According to Calvin, the woman is the same image of God as man from the creation and redemption. But she is not the image of God with reference to the political order of present life. He saw the veiling of woman and the silence in the church as *adiaphora* from the first edition of *Institutes*. But the forbidding of teaching in the church is the creation ordinance which is inviolable. Douglass interprets Calvin's position as the change possibility of the woman's subordination in the church in the future while Thompson understands that the *adiaphora* is changeable and the creation ordinance can't change. Calvin intimates the solution of the biological crisis because he sees the dominion of the nature as the part of image of God and explains the stewardship about the nature.

* **Key Words:** Image of God, God's glory, relationship, substance, *adiaphora*, dominion.

〈참고문헌〉

1. 1차 자료.

Calvin, John.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ted by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Munich, 1957.

_____.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unt omnia*. Edited by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unvige: A Schwetschke and Son.

2. 2차 문헌

고광필.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형상과 인간성 회복”. 『광신논단』 9/1 (2000): 143-75.

권호덕. “거울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이해”. 『한국개혁신학회논문집』 8/1 (2000): 200-44.

김요셉.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있어서 두 관점”. 『교회와 문화』 23 (2009): 209-29.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심창섭. “칼빈의 여성 사역에 대한 견해”.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08: 99-134.

심창섭.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기독교교육연구』 2/1 (1991): 87-101.

유창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평가”. 『조직신학연구』 11 (2008): 77-109.

이오갑.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조직신학논총』 3/1 (1998): 109-28.

이필은.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지도력과 아디아포라”. 『현상과 인식』 108 (2009): 57-77.

정미현. “칼빈 시대의 여성, 여성주의, 그리고 그의 신학”. 『한국교회사학회지』 26 (2009): 285-308.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일그러진 의지와 탁월한 이성”. 『복음과 상담』 12 (2009): 231-61.

Brunner, Emile and Karl Barth. *Natural Theology*. 김동건 역. 『자연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Byung-Ho Moon, "The Seat of Image of God: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Soul as Substantia." *Chongsbin Theological Journal* 13/1 (2007): 138-67.
- Douglas, Jane Dempsey. "The Image of God in Humanity: A Comparison of Calvin's Teaching in 1536 and 1564." In *In Honor of John Calvin, 1509-1564*. Papers from 1986 International Calvin Symposium McGill University. Edited by E. J. Furcha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87: 175-203.
- _____. "Christian Freedom: What Calvin Learned at the School of Women." *Church History* 53/2 (1984): 155-73.
- _____. "Calvin's Teaching: What Still Remains Pertinent." *The Ecumenical Review* 39/1 (1987): 23-43.
- Engel, Mary Potter . "Gender Equality and Gender Hierarchy in Calvin's Theology." *Sign* 11/4 (1986): 725-39.
- _____.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 Atlanta: Scholars Press, 1987.
- Kingsley, David. *Ecology and Religion: Ecological Spiritualit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nglewood: Prentice Hall, 1995,
- Muller, Ruchard A. *Unaccommodated Calvin*. 이은선 역.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 신학』. 서울: 나눔과 섬김, 2003.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Ou-Kab, Lee. "L'anthropologie die Jean Calvin: l'homme dans la tension bi-polaire entre le Deus maiestatis et la le Deus nobiscum." Facultés de Montpellier et de Paris, 1992.
- Stauffer, 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Stanley,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Imago Dei*.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Thompson, John L. "Crata ad Imaginem Dei, Licet Secundo Gradu: Woman as The Image of God according to John Calvin." *Harvard Theological Journal* 81/2 (1988): 125-43.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Western Man and Environmental Ethics*. Edited by Jan Barbour. Englewood: Addison-Wesley, 1973: 18-30,

Zachman, Randall C. "The Universe as the Living Image of God: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Reconsidered." *Concordia Theological Journal* 61/4 (1997): 299-312.

_____. *Image and Word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